

12-24 (통권 제 495호)

2012. 7. 6.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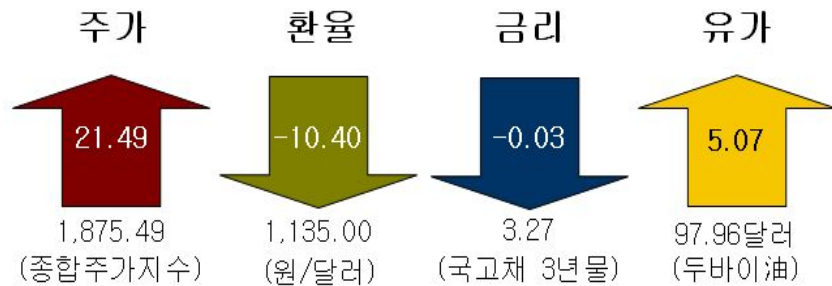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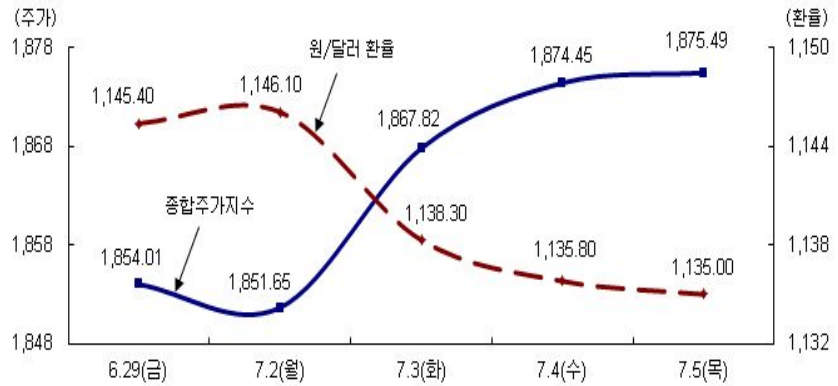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경제 행복, 일자리와 물가에 좌우
- 제 10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29~7.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경제 행복, 일자리와 물가에 좌우
제 10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집필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홍 유 림 전문 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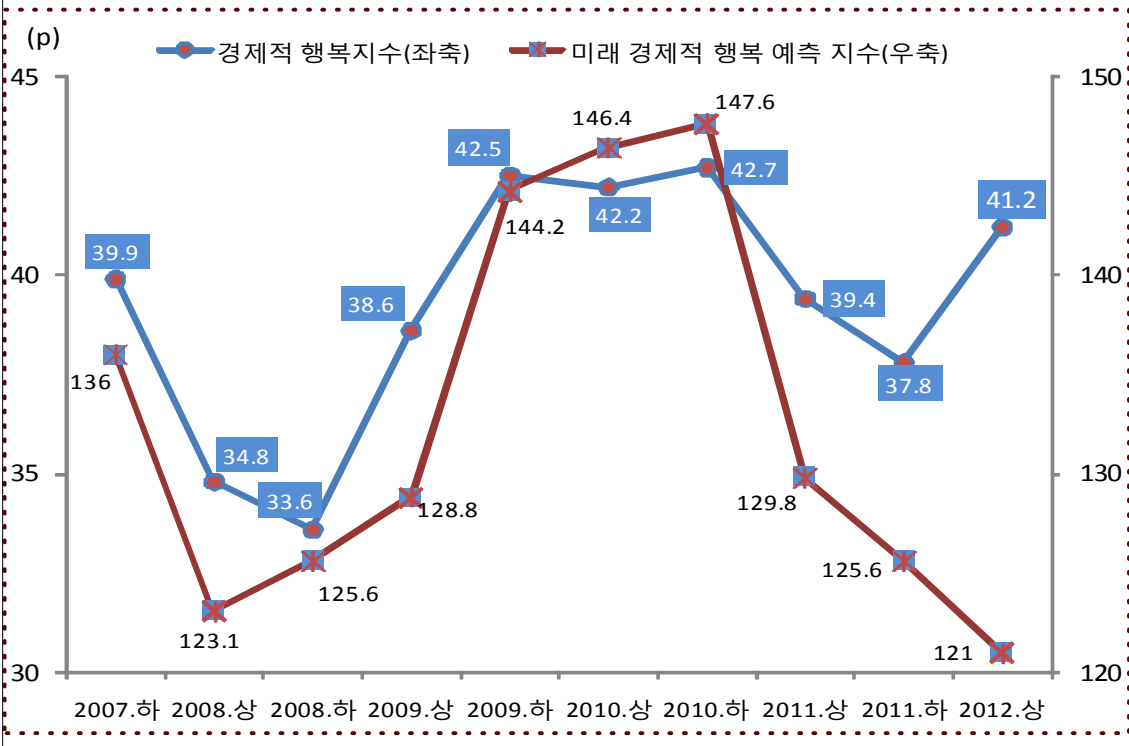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2012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대내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2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1.2로 전기 대비 3.4p 상승함
 -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은 높아지고 경제적 불안은 낮아짐에 따라 모두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이 개선됨
-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2년 하반기 121.0으로 4.6p 하락하면서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2012년 6월 현재, 대졸 이상의 공무원,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음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지역별 :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대전 충남 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조사됨
 - 지역 평균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대전으로 45.9를 기록하였고, 충남 대구, 울산, 경기, 강원이 뒤를 이음
 - 서울과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대구, 인천은 평균대비 높았으나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았음
 - 대전·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경제적 기대감과 부동산 경기호황이 배경이 됐기 때문임
- 직업별 :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계속 낮게 유지됨
 -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과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기대비로는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직업별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공무원, 직장인, 전문직은 평균보다 높아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영업자, 주부, 기타/무직군은 미래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연령별 :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음
 - 연령별로는, 20~3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경제적 행복감이 낮았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에서도 연령층이 낮을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및 자산별 :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돌아섬
 -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높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거나 전기대비로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됨
 - 자산별로는 고액자산가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고, 3~5억원 미만의 자산가를 제외하고 모두 전기대비 상승

-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평균대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기 대비 상승함. 고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전기대비로는 개선되었지만 평균보다는 낮음
 - 고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평균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음. 고졸 이하의 경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 **혼인상태별 : 미혼·기혼자의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상승했지만,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평균대비 낮았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짐**

○ 기획조사 결과

-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우리 국민 대부분인 84.6%이 경제적 행복감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
 -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59.4%는 경제적 행복감이 제자리 수준이며, 25.2%는 낮아졌다고 조사됨. 단지, 15.4%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소득, 물가, 일자리 등이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실질소득 감소(34.9%), 물가불안(31.3%), 일자리 불안(17.5%)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소득 증가(54.9%), 자산가치 상승(18.3%), 일자리 회복(17.6%)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정부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정책 등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
 -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행복감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46.0%), 일자리 창출(2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15.2%) 등의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 국민들의 46.2%는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상반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고, 36.5%는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여 약 82.7%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의 약 90%는 하반기 소비를 현상 유지, 또는 현재보다 줄일 계획
 - 우리 국민의 약 88.9%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현상 유지 또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 심화, 유로존 위기 지속, 내수 부진 등 3가지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함
 - 기후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단계별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낮은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각 수요에 맞는 일자리 공급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대기업 투자 유인 정책, 중소기업의 세계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함
 - 또한, 무직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과 고용시장 유연화 등이 요구됨
- 셋째, 2012년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
 - 2012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

제10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적 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나라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와 산출

- 본 연구에서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여기에 전반적 행복감을 추가하여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이며 전반적 행복감을 추가하여 지수화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2년 5월 30일 ~ 6월 13일(2주간)
- 조사 방식 : 전화설문 조사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 학생 제외)
- 오차 범위 : 95% 신뢰 수준에서 $\pm 3.09\%$
- 조사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2. 조사 결과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한 반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 지수는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경제적 행복지수는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생활물가 안정과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41.2로 지난 조사(2011년 12월)보다 3.4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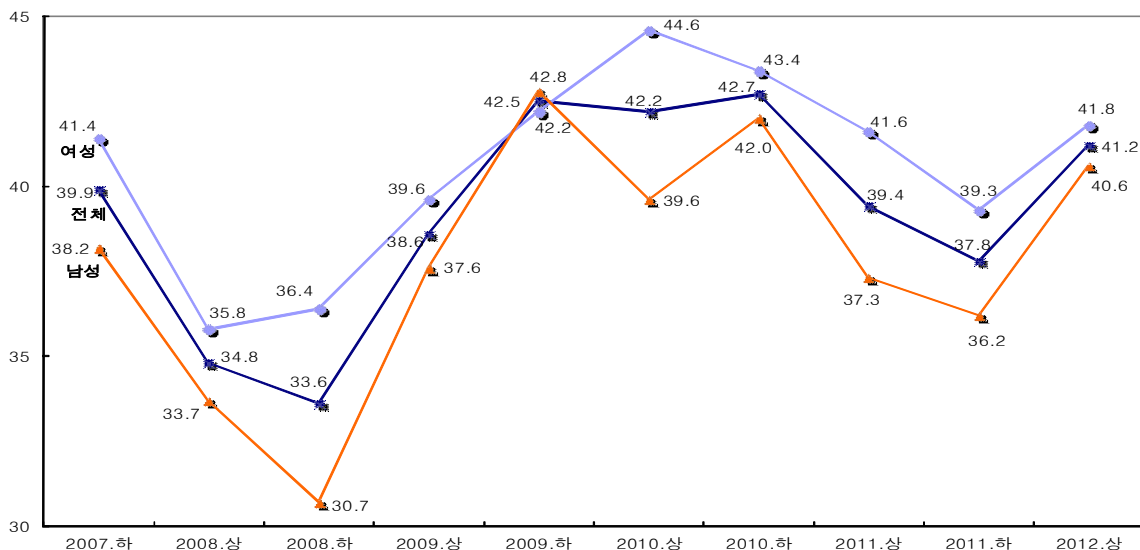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가 41.8로 전기대비 2.5p, 남성도 전기대비 4.4p 상승한 40.6을 기록

-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은 2012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대내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4.6p 하락한 121.0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012년 하반기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지난 조사에 이어 2012년 상반기(10회) 조사에서도 전기대비 4.6p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2012년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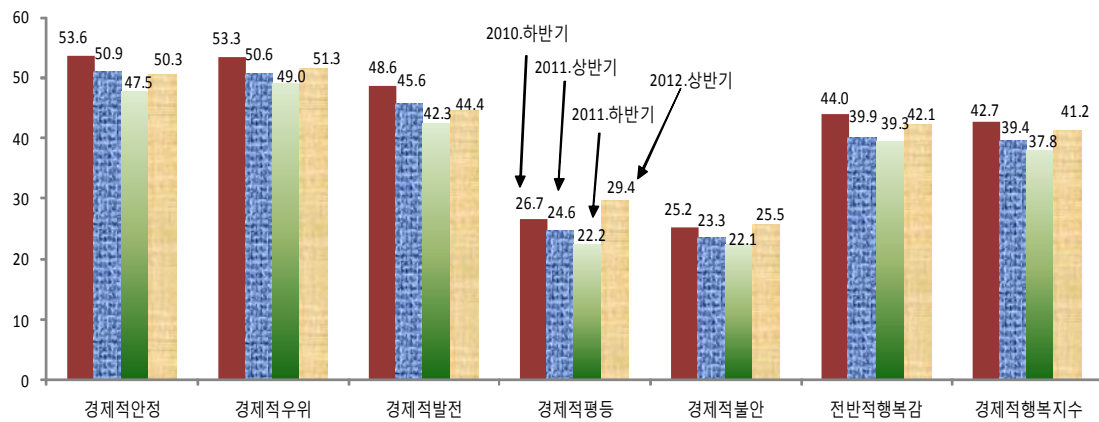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면서 각 구성 요소의 항목별 수치들도 모두 전기대비 개선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항목의 모든 수치들이 전개대비 개선됨
-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이 2.8p, 경제적 우위 2.3p 경제적 발전 2.1p, 경제적 평등 7.2p 상승하였고, 경제적 불안도 3.4p 개선되면서 경제적 만족도 상승에 영향을 줬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도 2.8p 높아짐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2012년 하반기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1.0으로 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대외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¹⁾는 3회 조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2012년 하반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가 전기대비 4.6p 하락한 121.0를 기록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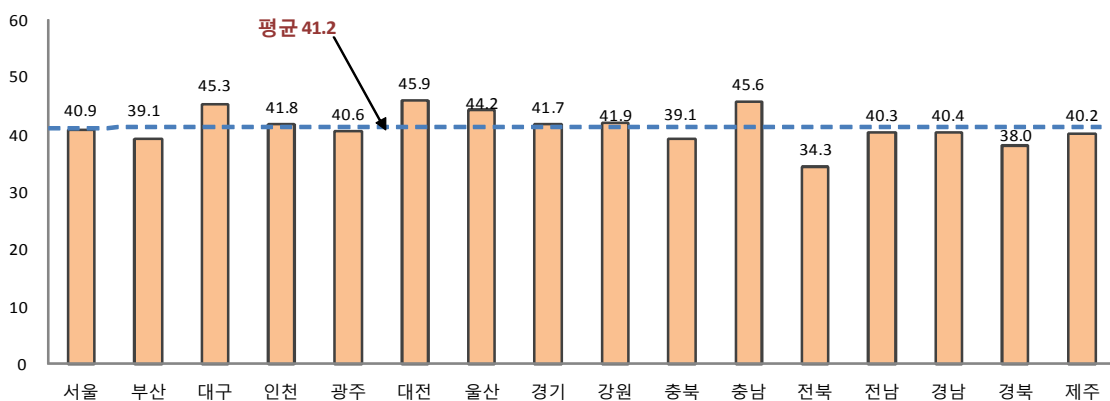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139.8	142.8	140.6	122.0	114.8	115.6
여 성	137.0	131.1	129.2	129.6	148.2	149.6	153.8	137.4	135.8	126.2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44.2	146.4	147.6	129.8	125.6	121.0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부수효과를 누리고 있는 대전·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5.9로 가장 높았음

- 세종시 출범에 따른 수혜와 수출 경쟁력이 높은 대전, 충남, 대구, 울산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남
 - 대전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충남, 대구, 울산, 경기도 뒤를 이음
 - 대전, 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각각 45.9, 45.6로 1,2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경제적 기대감과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IT 제품과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대구·울산의 경제 행복지수도 각각 45.3과 44.2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에도 하락세를 이어간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시도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충남이 141.0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138.8, 전남 138.8, 경남 134.4 순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2012년 하반기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금번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높았던 대전(45.9), 울산(44.2)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19.4, 103.2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는 지역은 경북으로 96.8을 기록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행복지수	40.9	39.1	45.3	41.8	40.6	45.9	44.2	41.7	41.9	39.1	45.6	34.3	40.3	40.4	38.0	40.2
지역별순위	8	13	3	6	9	1	4	7	5	13	2	16	11	10	15	12
경제적 행복 예측	125.0	132.2	138.8	122.6	119.4	119.4	103.2	115.6	114.8	114.8	141.0	101.6	138.8	134.4	96.8	116.2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직업별)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했으며, '자영업' 종사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계속해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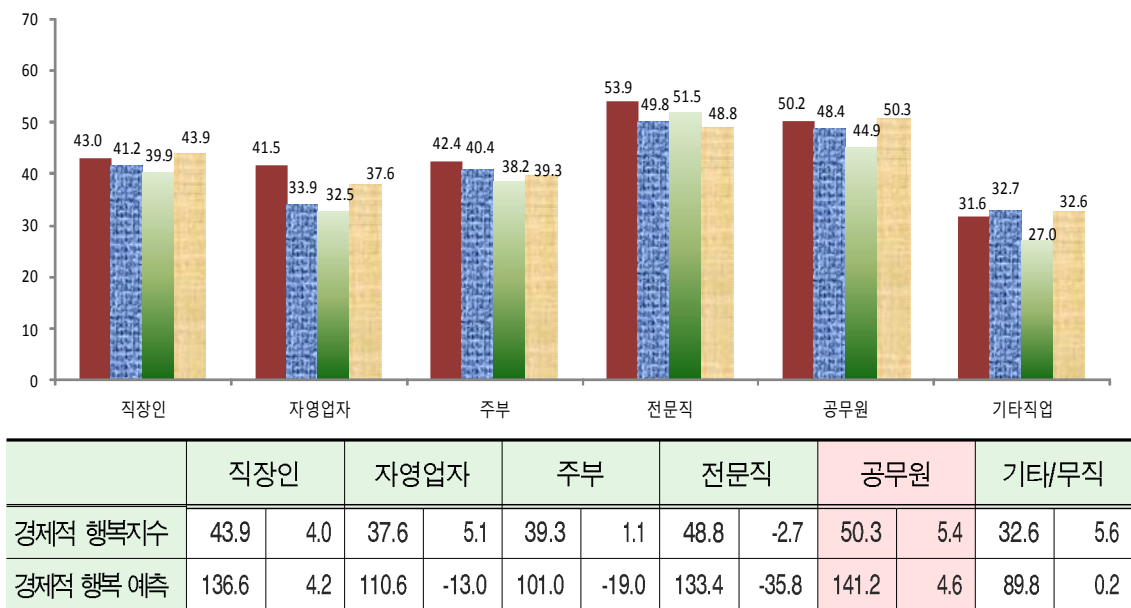
-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자영업자의 낮은 경제적 행복감은 지속됨

- 2012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공무원과 전문직으로 공무원은 전기대비 5.4p 상승한 50.3을 기록한 반면 지난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48.8로 낮아짐
- 한편, 자영업자의 행복지수도 전기대비 5.1p 상승한 37.6을 기록하였으나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행복지수는 3회 연속 30대에 머물며 낮은 상황이 지속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직업별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타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공무원, 직장인에게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공무원은 전기대비 4.6p 상승한 141.2, 직장인도 4.2p 상승한 136.6로 높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음
- 반면, 자영업자, 주부, 기타/무직군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 했는데 자영업자가 전기대비 13.0p, 하락한 110.6, 주부도 19p 하락한 101.0을 기록함

< 직업²⁾별 경제적 행복지수 >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9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으며, 2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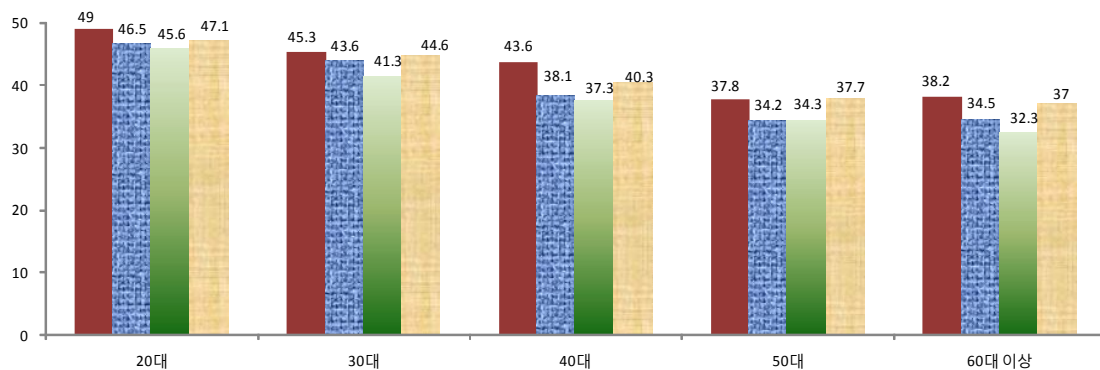
-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은 높았음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로 전기대비 1.5p 상승한 47.1을 기록하였고, 30대도 3.3p 상승한 44.6으로 평균보다 높았음
- 4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보다 낮는데 우선, 40대가 전기대비 2.9p 상승한 40.3을 기록하였고 50~60대는 각각 3.4p, 4.7p 상승한 37.7과 37.0으로 20~30대보다 경제적 행복감이 낮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하락하였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대의 경우 전기대비 10.4p 하락한 148.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30대가 전기대비 1.6p 하락한 144.0, 40대도 0.4p 상승한 125.4로 평균 대비 높아 낙관적인 입장을 보임
- 반면, 50대는 전기대비 11.0p 하락한 95.2, 60대 이상도 10p 하락한 86.0을 기록하여 고령자들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47.1	1.5	44.6	3.3	40.3	2.9	37.7	3.4	37.0	4.7
경제적 행복 예측	148.8	-10.4	144.0	-1.6	125.4	0.4	95.2	-11.0	8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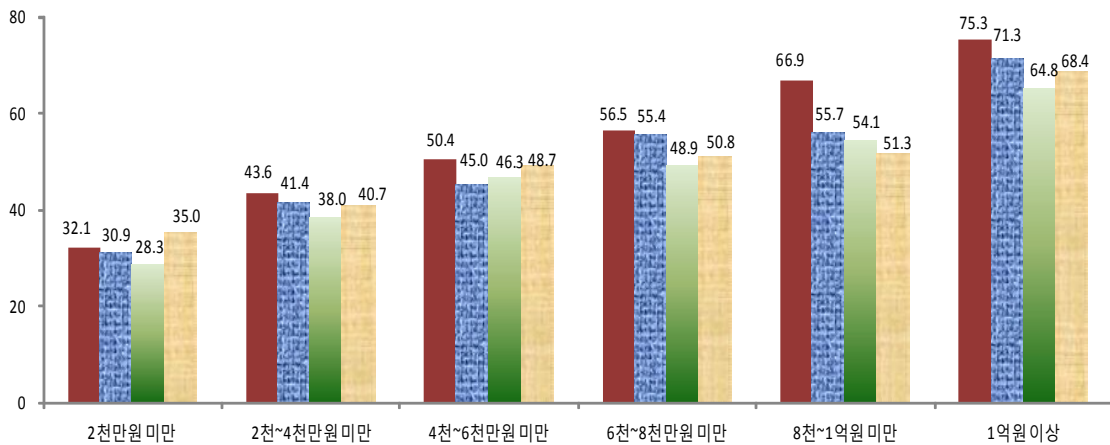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소득 및 자산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고소득·고액 자산가들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

-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행복감은 높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전기대비 하락폭이 커졌음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음.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은 2천만원 미만으로 35.0를 기록하였고,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은 1억원 이상으로 68.4를 기록하여 저소득층과 거의 2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전기대비 하락하였는데,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일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임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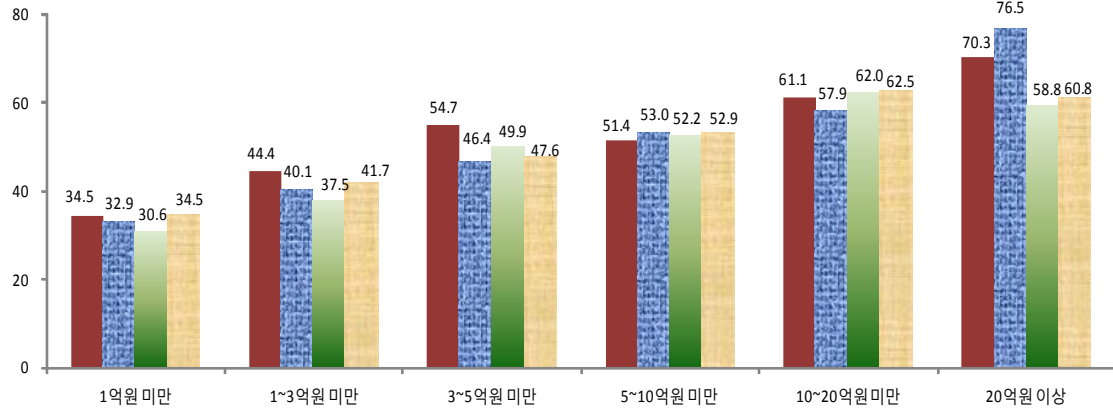
	2천 만 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 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35.0	40.7	48.7	50.8	51.3	68.4
경제적 행복예측	106.0	125.2	136.0	128.8	130.8	142.8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자산 규모별로도 고액자산가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는 3~5억 미만에서만 전기대비 2.3p 하락한 47.6을 기록하였고, 그 외 자산 규모별로는 모두 전기대비 상승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억원 이상만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가 계층에서 전기대비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음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행복지수	34.5	39	41.7	4.2	47.6	-2.3	52.9	0.7	62.5	0.5	60.8	2.0
경제적 행복예측	114.2	-1.2	121.2	-9.0	127.2	-4.4	134.2	-11.8	139.2	-10.8	200.0	100.0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도 낙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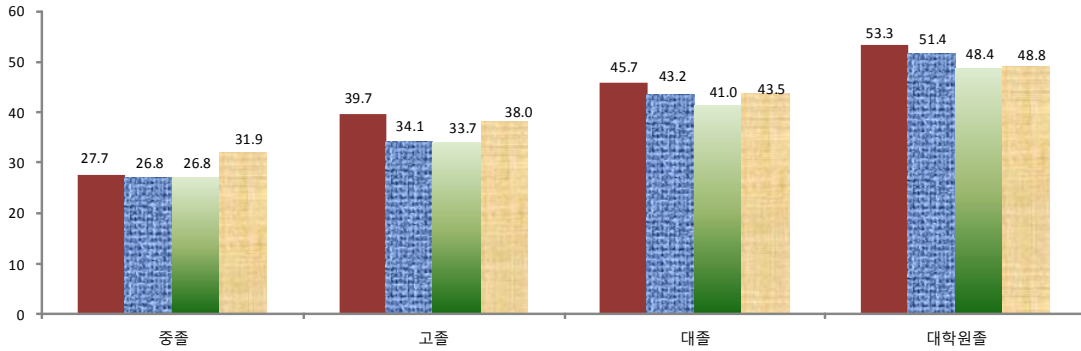
- 전 학력별로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 지수도 높음

-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2.5p, 0.4p 상승한 43.5와 48.8로 평균대비 높았음
- 고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도 전기대비 각각 4.3p, 5.1p 상승한 38과 31.9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낮고 고학력자보다는 경제적 행복감이 낮게 조사됨

-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고학력자일수록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각각 7.0p 4.8p 하락하였으나 평균보다는 높아 고졸 이하에 비해서는 미래 경제 상황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평균보다 낮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행복지수	31.9	5.1	38.0	4.3	43.5	2.5	48.8	0.4
경제적 행복예측	91.6	3.8	108.6	-6.2	130.0	-7.0	133.4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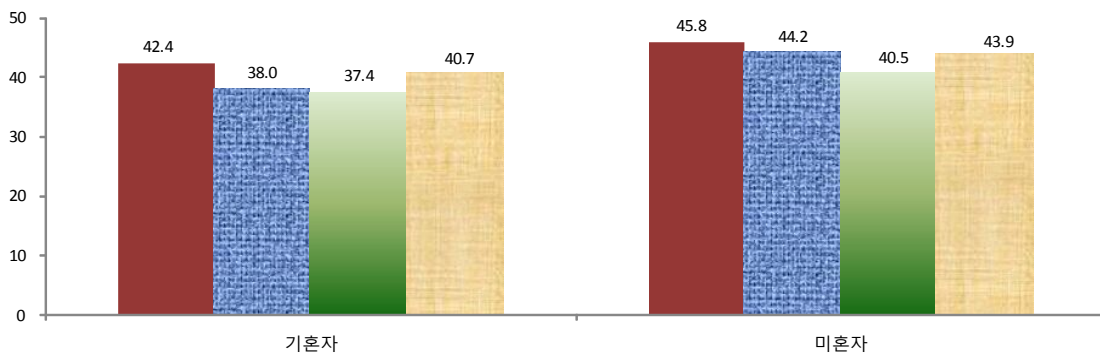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 (혼인 상태별)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평균대비 낮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짐

-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경제적 행복감이 더 높았음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3.9로 전기대비 3.4p 상승하였고, 기혼자도 40.7로 전기대비 3.3p 상승함. 하지만,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대비 낮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미혼자가 144.2로 전기대비 8.0p 상승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 낙관적 시각을 보인 반면, 기혼자는 전기대비 9.0p 하락한 115.0로 평균대비 낮았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나타냄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경제적 행복지수	40.7	3.3	43.9	3.4
경제적 행복 예측	115.0	-9.0	144.2	8.0

주: 행복지수와 예측 지수의 오른쪽 칸은 전기대비 증감임.

3. 기획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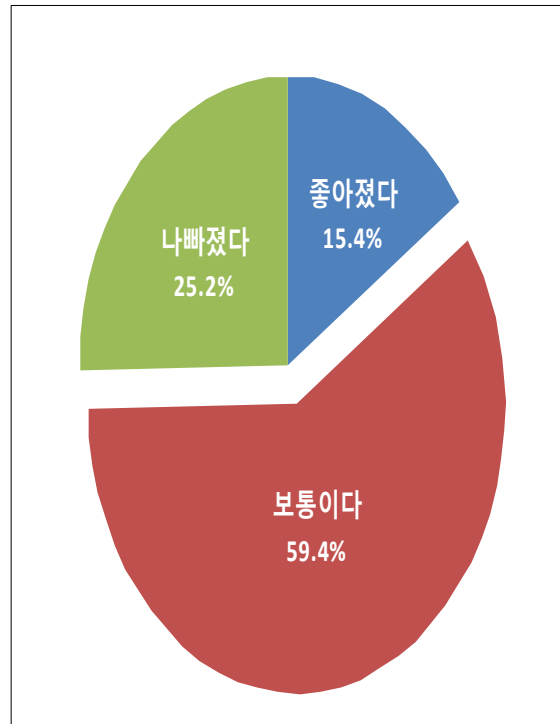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우리 국민 대부분인 84.6%의 경제적 행복감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

- 1인당 국민소득이 1997년 1만달러에서 최근 2만달러로 넘어서며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은?

- 전체 1,000명 중에서 595명 (59.4%)은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행복감은 '보통이다'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252명 (25.2%)은 경제적 행복감이 나빠졌고, 153명 (15.4%)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즉, 우리 국민 약 85%의 경제적 행복감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지속되는 대외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 상승, 고용률 정체, 내수 부진 등의 체감 경기 악화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은 소득 증가 또는 감소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 행복감이 좋아졌다면, 그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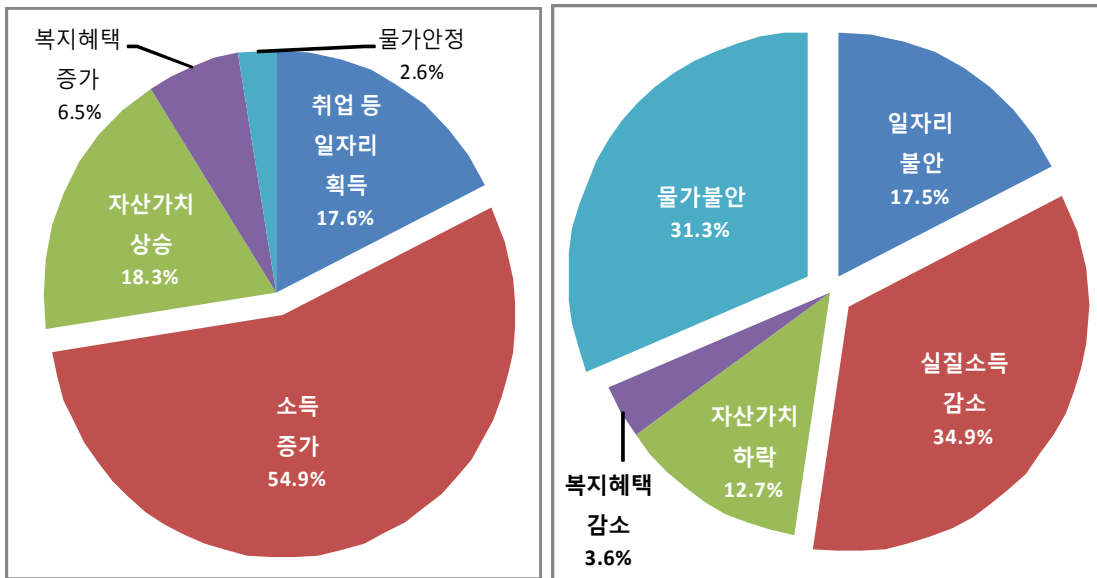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153(15.4%)명임
- 이들은 소득 증가(54.9%), 자산가치 상승(18.3%), 취업(17.6%)순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됐다고 응답함
- 복지혜택 증가(6.5%), 물가안정(2.6%)이 그 뒤를 이음

- 경제 행복감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은?

- 경제적 행복감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252(25.2%)명임
- 경제적 행복감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서는 실질소득 감소(34.9%)와 물가불안 (31.3%), 일자리 불안(17.5%) 순으로 조사됨
- 자산가치 하락(12.7%), 복지혜택 감소(3.6%)가 그 뒤를 이음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진 원인>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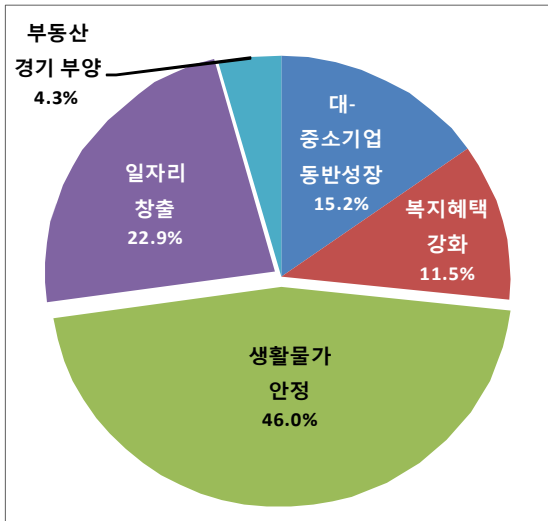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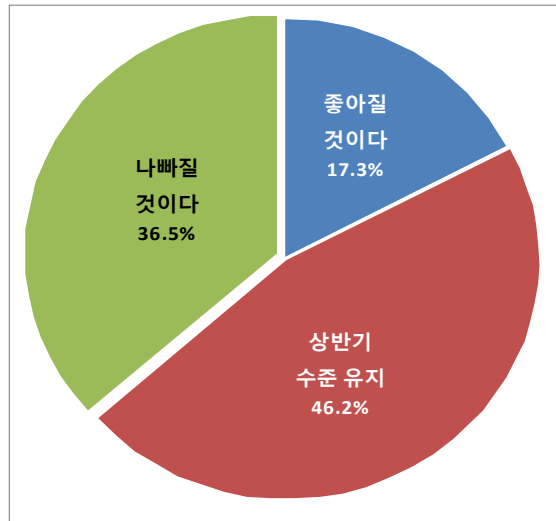
-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총 999명 중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460명(46.0%)이 ‘생활물가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물가안정 이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2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5.2%’, ‘복지혜택 강화 11.5%’, ‘부동산 경기부양 4.3%’ 순으로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행복감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이 생활물가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적 행복감 제고를 위한 정책>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 우리 국민들의 82.7%는 2012년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97명 중 461명(46.2%)은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상반기 수준을 유지', 364명(36.5%)은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고 단지 172명(17.3%)만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2012년 1/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8%를 기록하였고 상반기에도 2.9%*에 머무를 것이나,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82.7%는 하반기 경제 성장이 상반기 수준이나 오히려 나빠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수정경제 전망, 통권 12-27, 2012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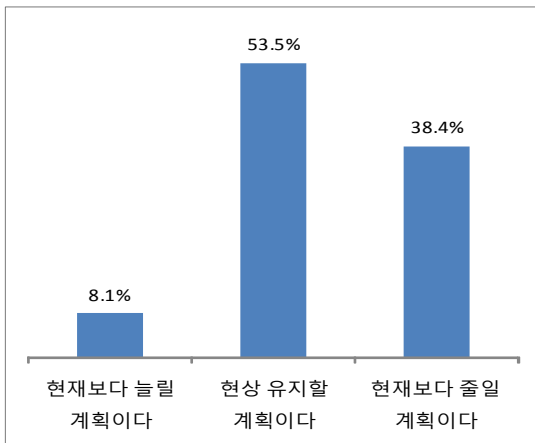
○ 2012년 하반기에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약 90%는 소비와 부동산 경기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함

- 2012년 하반기 소비 계획은?
 - 전체 응답자 999명의 하반기 소비 계획은 53.5%는 현상 유지, 38.4%는 현재보다 줄일 계획이어서 소비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응답자 중 8.1%만이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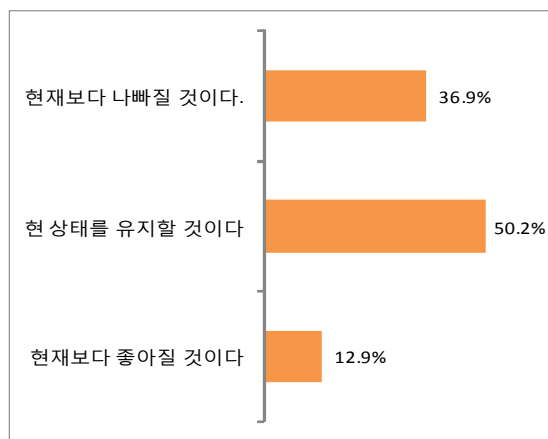
-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전체 응답자 996명의 52%는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현 상태 유지, 36.9%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응답자 중 12.9%만이 하반기 국내 부동산 경기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012년 하반기 소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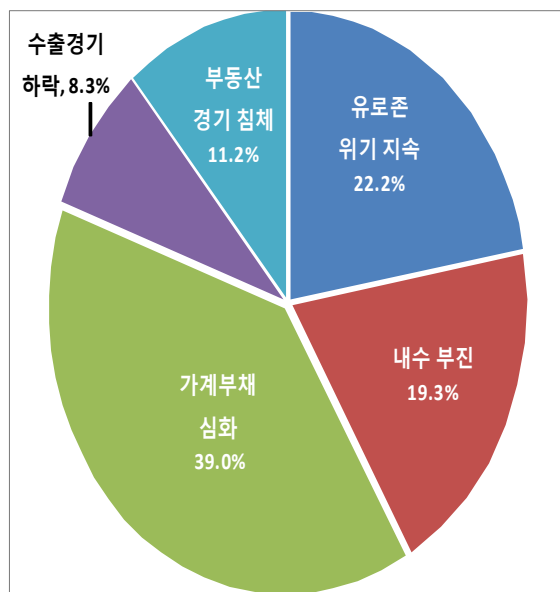
<2012년 하반기 부동산경기 전망>



○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 심화와 유로존 위기 지속 등이 하반기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96명 중에서 39%인 388명이 가계부채 심화, 22.2%인 219명은 유로존 위기 지속이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내수 부진 19.3%, 부동산 경기 침체 11.2%, 수출 경기 하락 8.3% 순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
-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2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미혼·공무원의 20대 여성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대전·충남, 대구, 울산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
 -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6개월 전보다는 높아졌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못함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저학력의 60대 이상의 남자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무직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로는 상승하였지만 전반적인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져 이들은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우리나라 국민 약 85%의 경제적 행복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부문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함

-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우리 국민 대부분의 경제적 행복감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
 -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59.4%는 경제적 행복감이 제자리 수준이며, 25.2%는 낮아졌다고 조사됨. 단지, 15.4%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소득 증감, 물가, 취업 등이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실질소득 감소(34.9%), 물가불안(31.3%), 일자리 불안(17.5%)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소득 증가(54.9%), 자산가치 상승(18.3%), 일자리 획득(17.6%)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정부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정책 등의 효과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인식
 - 우리 국민들은 체감 경제적 행복감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46.0%), 일자리 창출(2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15.2%) 등의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 국민들의 82.7%는 2012년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는 저성장에 머물러 '경기 침체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우리 국민들의 46.2%는 2012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상반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고, 36.5%는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하여 약 82.7%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약 90%는 하반기 소비를 현상 유지, 또는 현재보다 줄일 계획이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약 88.9%가 현상 유지 또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 심화, 유로존 위기 지속, 내수 부진 등이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첫째, 국민 대다수는 소득과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
 - 기후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단계별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낮은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청년, 중장년, 고령자 각각에 대한 일자리 공급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
- 무직자,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도 요구됨

- 셋째, 2012년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
- 또한, 2012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홍 유 림	전 문 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

<첨부. 제 10회 경제적 행복지수 결과>

< 1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44.8	47.6	54.4	54.0	51.2	58.1	48.4	45.7	54.1	48.4	52.0	44.3	47.2	50.4	50.4	55.2
경제적 우수	48.9	52.4	53.2	47.6	57.7	55.2	50.8	55.1	50.4	48.0	56.0	42.2	53.6	43.9	49.6	55.3
경제적 발전	45.5	43.5	43.5	40.7	50.4	44.0	41.8	44.5	48.4	45.1	47.6	40.6	47.6	45.1	40.3	41.1
경제적 평등	26.4	27.0	39.9	29.0	19.8	32.3	35.5	27.7	26.2	29.1	37.3	23.0	24.2	30.3	34.7	28.2
경제적 불안	31.6	18.5	35.9	27.0	21.4	23.8	22.6	25.4	26.6	20.1	32.3	21.3	21.0	25.8	23.8	29.4
전반적 행복감	42.4	40.3	45.2	43.5	41.1	49.2	47.6	43.8	42.6	40.2	45.2	34.4	41.9	41.7	36.3	38.7
경제적 행복지수	40.9	39.1	45.3	41.8	40.6	45.9	44.2	41.7	41.9	39.1	45.6	34.3	40.3	40.4	38.0	40.2
지역별순위	8	13	3	6	9	1	4	7	5	13	2	16	11	10	15	12
경제적 행복 예측	125.0	132.2	138.8	122.6	119.4	119.4	103.2	115.6	114.8	114.8	141.0	101.6	138.8	134.4	96.8	116.2

< 2 >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4.2	3.6	41.8	3.1	47.7	2.8	58.3	6.4	77.0	8.6	36.2	7.0
경제적 우수	51.7	0.9	47.9	3.0	52.8	1.5	66.7	7.1	62.3	10.9	44.9	5.7
경제적 발전	54.3	7.7	39.7	1.7	31.8	-6.1	45.8	-2.3	59.3	-1.2	20.8	3.1
경제적 평등	27.0	4.9	29.6	10.1	31.1	8.9	25.0	5.8	30.9	9.4	37.1	7.0
경제적 불안	26.9	4.2	22.9	-0.8	24.8	8.7	41.7	12.9	24.0	-1.6	24.4	1.4
전반적 행복감	44.9	3.2	38.8	6.8	40.8	-1.2	50.0	-11.5	50.0	5.3	32.6	6.2
경제적 행복지수	43.9	4.0	37.6	5.1	39.3	1.1	48.8	-2.7	50.3	5.4	32.6	5.6
경제적 행복 예측	136.6	4.2	110.6	-13.0	101.0	-19.0	133.4	-35.8	141.2	4.6	89.8	0.2

< 3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6.2	3.7	54.0	4.6	50.7	0.0	46.0	-0.3	44.6	9.4
경제적 우수	56.6	1.7	53.1	4.3	49.6	1.1	48.8	-0.2	50.4	4.9
경제적 발전	60.5	6.9	58.9	2.5	44.7	1.2	31.3	-0.3	22.8	-0.7
경제적 평등	27.9	-0.5	26.7	8.6	27.5	6.6	30.6	8.5	38.5	9.7
경제적 불안	33.9	4.2	28.7	2.7	20.2	0.7	22.9	4.8	26.8	5.8
전반적 행복감	47.1	-1.4	44.7	1.6	42.1	3.9	39.3	3.9	37.4	3.6
경제적 행복지수	47.1	1.5	44.6	3.3	40.3	2.9	37.7	3.4	37.0	4.7
경제적 행복 예측	148.8	-10.4	144.0	-1.6	125.4	0.4	95.2	-11.0	86.0	-10.0

< 4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8.4	7.4	49.7	1.2	65.7	3.5	64.4	-0.7	76.0	3.5	82.1	-4.3
경제적 우위	42.6	6.6	51.2	3.2	59.5	-1.4	63.9	-6.8	69.2	-3.3	89.3	14.3
경제적 발전	35.6	8.8	45.4	-1.8	53.4	0.3	55.0	3.2	49.0	-1.0	80.4	16.8
경제적 평등	31.4	7.8	29.0	8.5	29.4	6.8	20.6	-2.6	28.8	1.3	25.0	2.3
경제적 불안	24.1	5.1	25.0	2.7	26.8	2.6	26.1	-1.1	30.8	-0.5	50.0	13.6
전반적 행복감	35.5	5.9	41.4	2.4	50.0	1.8	55.6	4.9	51.9	-5.6	71.4	-1.3
경제적 행복지수	35.0	6.7	40.7	2.7	48.7	2.4	50.8	1.9	51.3	-2.8	68.4	3.6
경제적 행복예측	106.0	-0.4	125.2	-6.0	136.0	-0.4	128.8	-13.2	130.8	-19.2	142.8	-20.8

< 5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40.6	3.0	51.6	3.3	63.5	-0.9	60.7	-0.4	79.3	2.2	41.7	-45.8
경제적 우위	42.0	5.1	51.7	-1.9	60.0	-3.1	71.4	1.5	76.1	3.2	83.3	-16.7
경제적 발전	41.8	5.0	44.1	0.7	48.2	-4.6	43.9	-7.5	67.4	16.4	33.3	-29.2
경제적 평등	29.8	9.5	28.8	8.8	26.6	0.8	32.5	1.8	32.6	-0.7	50.0	12.5
경제적 불안	23.3	3.8	22.9	1.5	30.2	4.3	34.6	6.2	32.6	1.3	66.7	16.7
전반적 행복감	33.6	1.9	43.2	5.5	49.4	-4.0	57.1	1.0	67.4	-3.4	66.7	16.7
경제적 행복지수	34.5	3.9	41.7	4.2	47.6	-2.3	52.9	0.7	62.5	0.5	60.8	2.0
경제적 행복예측	114.2	-1.2	121.2	-9.0	127.2	-4.4	134.2	-11.8	139.2	-10.8	200.0	100.0

< 6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31.8	2.2	44.1	5.3	55.0	1.3	62.0	-2.1
경제적 우위	40.8	1.7	48.0	3.7	54.1	2.1	54.7	-7.1
경제적 발전	22.9	0.0	37.0	3.2	51.1	2.2	43.2	-14.1
경제적 평등	36.6	13.0	33.6	8.9	26.1	6.0	32.3	4.1
경제적 불안	19.9	3.8	25.4	6.8	26.4	1.8	24.5	-2.8
전반적 행복감	33.3	5.8	38.1	2.6	44.4	1.9	54.2	5.1
경제적 행복지수	31.9	5.1	38.0	4.3	43.5	2.5	48.8	0.4
경제적 행복예측	91.6	3.8	108.6	-6.2	130.0	-7.0	133.4	-4.8

< 7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기혼자		미혼자	
경제적 안정	50.1	2.3	53.1	4.7
경제적 우위	51.4	1.6	52.3	4.8
경제적 발전	41.4	0.8	56.6	5.2
경제적 평등	30.0	8.1	26.7	3.1
경제적 불안	23.8	3.0	31.3	4.4
전반적 행복감	42.0	3.2	43.8	1.7
경제적 행복지수	40.7	3.3	43.9	3.4
경제적 행복예측	115.0	-9.0	144.2	8.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29일	7월 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5	1.60	-0.05%p
	엔/달러	81.19	80.66	77.66	79.37	79.93	0.56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437	1.2524	0.008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880	12,897	17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007	9,080	7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0	3.27	-0.03%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45.4	1,135.0	-10.4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54.0	1,875.5	21.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29일	7월 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4.86	87.07	2.21\$
	Dubai	88.80	106.75	104.89	92.89	97.96	5.07\$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84.19	293.26	9.0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